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24

# 하나님과과의 열 가지 약속

(출애굽기 19장~24장)

##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시내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도 높았고  
바위로 가득한 험한 돌산이었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심과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길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죠.

**“모세야. 내일모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내려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니  
백성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그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있어야 한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주히 움직였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길어오고 어떤 사람은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어요.  
뽀뽀한 구름이 시내산 정상에 가득하더니  
별안간 어마어마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쨌렁쨌렁한 소리에 온 산이 진동하고  
난생처음 보는 광경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았어요.  
구름과 연기로 가득한 산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열 가지 명령!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중한 약속이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였죠.  
당시에 살던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나  
나무, 동물 같은 것들을 신처럼 모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서는 우상 만드는 걸 금지하셨어요.**

**대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자손이 수백, 수천 대 이어질 때까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하나님을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나쁜 단어를 섞어서  
부르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일곱 번째 날엔 쉬셨던 걸 기억하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6일 동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꼭 쉬어야 돼요.**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데

다섯 번째, 부모님께 공경하기.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기.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기.

음란한 죄를 짓지 말고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기.  
아홉 번째, 이웃을 거짓말로 속이거나  
나쁜 말 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이웃이 가진 걸 탐내지 않기.**

**이렇게 열 가지 약속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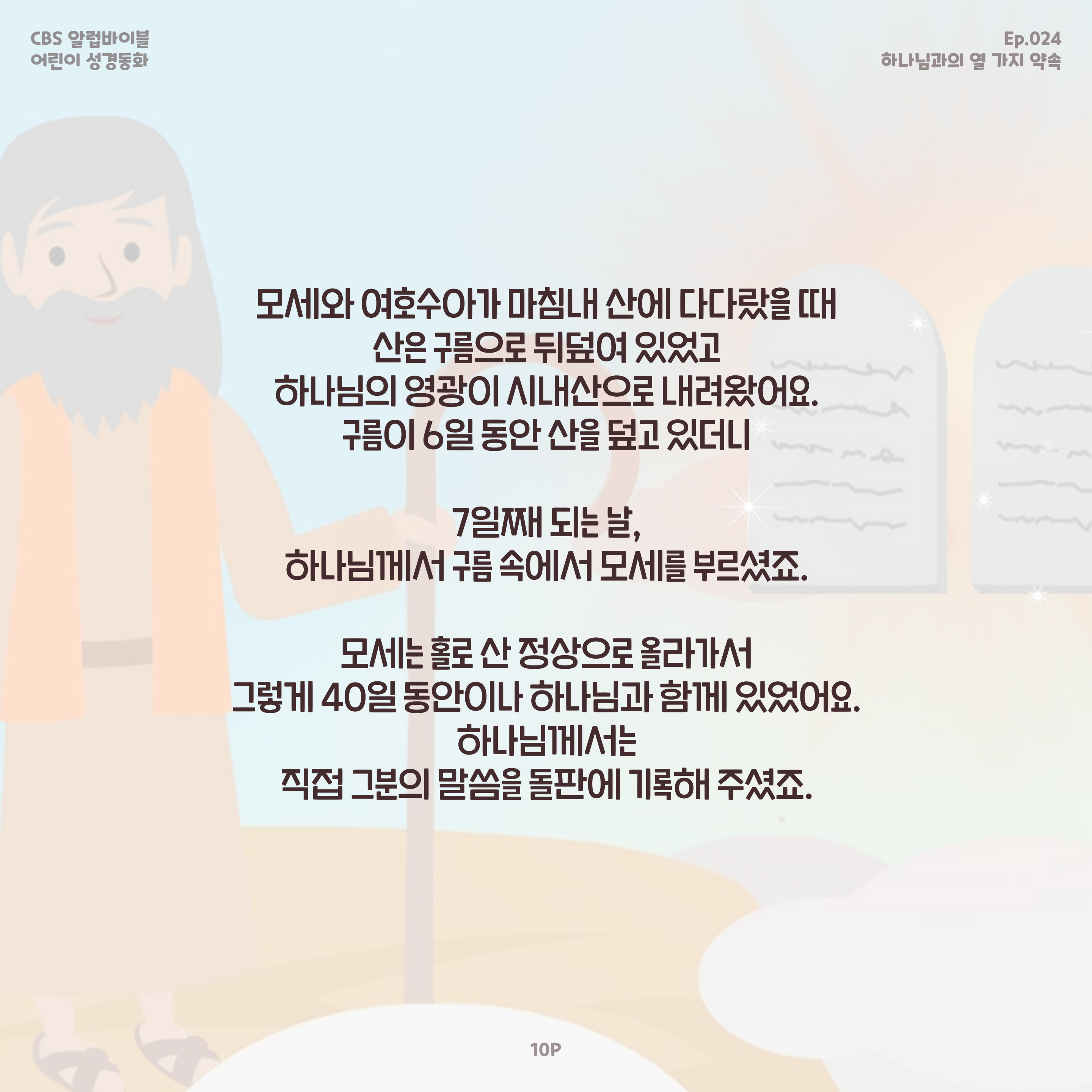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고 백성들은 한목소리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있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거라.  
내가 너에게 돌판 두 개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돌판에  
나의 계명들을 직접 적어줄 것이다.”**

모세는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 산으로 향했어요.  
대신 형 아론에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마침내 산에 다다랐을 때  
산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어요.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더니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한편 땅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참 떨어진 땅에서 볼 때도  
시나산에선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산꼭대기가 마치 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진짜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 봐!  
저 불빛 좀 보라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했지만  
과연 변덕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모세가 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나쁜 생각들이  
생겨나고 있었답니다!  
과연, 모세가 내려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었을까요?